2015년11월12일년 수능(생활과윤리) 필기시험 기출문제 답안

【1과목 : 20문제】 과목 구분 없음	1	2	3	4	5	6	7	8	9	10
	⑤	⑤	②	①	④	④	③	④	②	⑤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⑤	⑤	④	④	①	③	①	③	②	①

전자문제집 CBT 홈페이지 : https://www.cbtestpro.kr

최신 수정 자료와 해설(오타・오답・규정변경)은 cbtestpro.kr 웹 및 앱에서 확인하세요.

기출문제의 저작권은 출제기관에 있습니다. cbtestpro.kr 및 관련 앱에서는 편집 및 재구성 작업만 하였음을 밝힙니다.

CBT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빠르고 효과적으로 배워 시험 합격을 노려라!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1과목】 과목 구분 없음 (20문제)

1. (ㄱ)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거짓말은 나쁜가?' 와 같은 도덕 문제에 답하려면 관련된 문제들에 답해야 한다. 어떤 학자들은 '선악을 구분하는 도덕 원리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 유용성, 정언명령 등의 답을 제시하였다. 다른 학자들은 ' '나쁘다' 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 금지, 협오 등의 답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은 대답들은 현실에서 제기되는 도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제시하지 못한다. 따라서 ' ㉠ ' 와 같은 물음에 답하는 윤리학의 분야가 필요하다.

①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가 보편타당한 도덕 규범인가?

② '거짓말은 나쁘니까 사소한 거짓말도 나쁘다.'라는 추론이 타당한가?

③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신념이 지역적, 시대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④ 선의의 거짓말과 관련된 도덕적 딜레마의 논리적 구조는 무엇인가?

⑤ 취재원 보호를 위한 기자의 거짓말이 언론 윤리에 위배되는가?

2. 갑, 을, 병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점]

> 갑: 기업은 기업 활동을 기업의 이윤 추구라는 목적에 한정해야 한다.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 을: 기업은 주주, 소비자, 지역 사회 구성원 등과 같이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즉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 병: 기업은 기업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다만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주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① 갑 : 기업은 모든 지역 사회 구성원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② 을 : 기업은 투자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차등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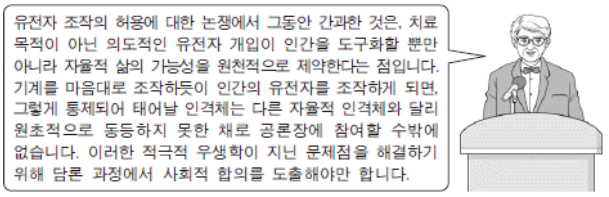
③ 병 : 기업은 항상 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④ 갑, 을 : 기업은 기업의 이윤 극대화 이외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⑤ 을, 병 : 기업은 모든 이해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할 책임을 가진다.

Download on the App Store 전자문제집 CBT(App Store) :[다운로드]
GET IT ON Google Play 전자문제집 CBT(Google Play) :[다운로드]

3.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유전자 조작의 문제점을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② 치료 목적 외의 유전자 개입을 위한 도구적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

③ 치료 목적 외의 유전자 개입은 잠재적 담론자의 평등을 제한한다.

④ 적극적 우생학은 인간관계를 기계적 인과관계로 왜곡시킨다.

⑤ 적극적 우생학을 위한 연구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침해한다.

4. 다음 사상에서 강조하는 올바른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이지 않는 데에서도 언제나 조심해야 하고, 들리지 않는 데에서도 항상 두려워해야 한다. 숨은 것처럼 잘 드러나는 것이 없으며, 미세한 것처럼 잘 나타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홀로 있을 때에도 항상 조심하고 삼가는 것[愼獨]이다.

①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하여 예(禮)를 실현하는 삶을 추구한다.

② 인의(仁義)를 버리고 자연의 소박한 덕을 따르는 삶을 추구한다.

③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心齋] 천리를 따르는 삶을 추구한다.

④ 우주 만물의 무상함을 깨닫고 무위(無爲)를 실천하는 삶을 추구한다.

⑤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 사랑[慈悲]을 실천하는 삶을 추구한다.

5. 해외 원조에 대한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갑: 원조는 만인이 공정하게 분담해야 할 전 지구적 의무이다.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남는 소득이 있으면 소득의 1%를 기부하여 세계의 빈민을 도와야 한다.
> 을: 원조는 차등의 원칙을 국제 사회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원조의 의무는 고통받는 사회들이 만민의 사회의 충분한 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① 갑 : 큰 희생 없이 타국의 빈민을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 한다.

② 갑 : 인류 전체의 공리 증진을 위해 원조의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

③ 을 :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원조해야 한다.

④ 을 : 국제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원조해야 한다.

⑤ 갑, 을 : 해외 원조는 자선이 아닌 당위의 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

6.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경기 중에 발생하는 규칙 위반의 경우에는 의도적인 것과 비의도적인 것이 있습니다. 경기 중에 발생하는 규칙 위반이 모두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을: 동의합니다. 비의도적인 규칙 위반은 고의성이 없으니 비난받을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의도적인 규칙 위반이라면 예외 없이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 갑: 아닙니다. 비의도적인 규칙 위반은 물론, 합당한 벌칙을 예상하며 승리를 위해 계획적으로 규칙을 위반하는 반칙은 경기 규칙의 일부로 수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전술적 반칙도 심판을 속이는 반칙과 마찬가지로 상대 선수를 오직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① 규칙 위반은 모두 도덕적 비난의 대상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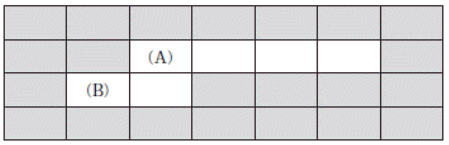
② 심판을 속이는 반칙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인가?

③ 의도적인 규칙 위반은 모두 도덕적 비난의 대상인가?

④ 승리를 위한 전술적 반칙은 도덕적으로 허용되는가?

⑤ 비의도적인 규칙 위반은 모두 도덕적으로 허용되는가?

7. (가)의 입장에서 볼 때, 퍼즐 (나)의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소프트웨어의 발전은 진화 과정과 유사하다.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어떤 사람이 그 일부를 손질하여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그 후 또 다른 사람이 다른 부분을 손질하여 또 다른 특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소유권의 존재는 이러한 진화를 방해한다.
(나)	 [가로 열쇠] (A): 사사로운 정이나 관계에 이끌려 일을 하는 것. 실적이 아니라 정치성·혈연·지연·개인적 친분 등을 중심으로 공직에 사람을 임용하는 인사 관행 (B): 선악의 행위에 따라 받게 되는 고락(苦樂)의 갚음. 인과◯◯ [세로 열쇠] (A): …… 개념

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게 되면 진화에 방해를 받는 개체이다.

② 사용자가 어디서든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공적 환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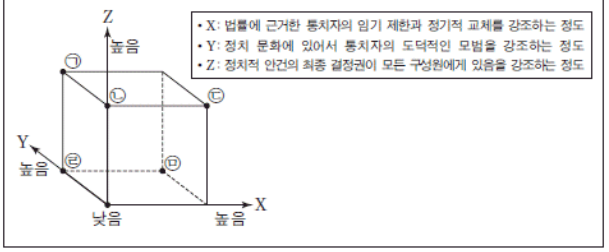
③ 모두가 자유롭게 접근하고 공유해야 할 상호 협력의 산물이다.

④ 소유권의 자유로운 이전을 통해 진화하는 프로그램의 단위이다.

⑤ 무한한 복제·수정이 가능하므로 무단 사용을 금해야 할 자산이다.

8. (가) 사상에 비해 (나) 사상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ㄱ)~(ㅁ)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모든 시민은 최고 권력을 가지며 자유롭고 평등하다. 시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며, 다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
(나) 군주가 백성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으면 백성도 그의 기쁨을 기뻐하게 된다. 백성과 함께 기뻐하면서 천하에 왕 노릇 하지 못한 경우는 아직 없었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자본주의 정신과 문화는 지속적, 체계적, 현세적인 직업 노동을 최고의 금욕 수단으로 여기는 프로테스탄티즘 정신에서 태어났다. 이 정신이 자본주의 윤리의 기초이다.
을: 자본주의에서 사유 재산은 소외된 인간 생활의 표현이다. 사유 재산을 적극적으로 지양하면 모든 소외가 지양되어 계급이 소멸된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다.

① 갑은 프로테스탄티즘이 세속적 삶을 위해 부(富)를 지향한다고 본다.
② 을은 자발적 노동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③ 갑은 을과 달리 노동을 통한 자본의 형성을 부정해야 한다고 본다.
④ 을은 갑과 달리 필요에 따른 분배가 노동 의욕을 저하시킨다고 본다.
⑤ 갑, 을은 노동의 분업을 통해 인간 소외를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

10. (가), (나) 사상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점]

(가)	무명(無明)에 가려진 중생들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서로 오가는 것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四聖諦]를 모르기 때문이다.
(나)	삶과 죽음은 마치 사계절의 변화와 같다. 삶을 좋아함은 미혹(迷惑)이고, 죽음을 싫어함은 타향에 안주하여 고향에 돌아갈 줄 모르는 사람과 같다.

① (가)는 죽음을 다른 존재로 윤회하는 고리가 단절된 상태라고 본다.
② (나)는 사후의 평온보다 현세에서 인(仁)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본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죽음을 삶의 모든 번뇌가 소멸한 상태라고 본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죽음을 흩어져 있던 기가 모인 상태라고 본다.
⑤ (가), (나)는 생사를 차별해서는 안 되는 순환의 과정이라고 본다.

11. 다음 가상 편지에 제시된 전통 의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게
그동안 댁내 가족은 모두 평안하셨는가? 자네가 보내온 소식을 접하고, 내게 문의한 그 의례 절차에 대해 간단히 답하겠네. 먼저 예(禮)를 올릴 좋은 날을 가려서 택하고, 그때가 다가오면 먼저 친척 중에 예법을 아는 부인[賓客]을 주례(主禮)로 청하고, 당일 주례가 도착하면 주부(主婦)인 자네가 몸소 맞이하게나. 주례가 자네 여식(女息)에게 비녀[笄]를 꽂아 주면 방으로 데리고 가서 준비된 의복을 입히게나. 이어 간단히 예를 올리면 주례가 자네 여식에게 새로운 이름[字]을 지어 줄 걸세. 그 후 사당의 조상에 고한 다음, 잔치를 베풀어 사람들을 대접하면 된다네. 그러면 이로써 글을 맺으며 가족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네.

①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이며 인생의 마지막 통과 의례이다.
② 죽음의 확인에서 시작하여 일상으로의 복귀로 끝나는 의례이다.
③ 덕망과 학식을 갖춘 인재를 관직에 천거할 때 거행하는 의례이다.
④ 친족 관계를 벗어나 독립된 가정을 이루었음을 알리는 의례이다.
⑤ 성인(成人)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알게 하는 의례이다.

12.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주인에게 지배받도록 만들었다. 공리의 원칙은 이러한 복종 관계를 인식시켜 주고, 이성과 법률의 손길로 행복의 틀을 짜는 목적을 지닌 체계의 기초이다.
> 을: 자연의 질서에 속하면서도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집단의 도덕은 자연적 충동에 버금갈 만한 사회 세력을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도덕에 비해 열등하다.

① 갑은 행위에 대한 도덕 판단은 행위의 결과와 무관하다고 본다.

② 을은 개인의 도덕적 이상과 사회의 도덕적 이상이 같다고 본다.

③ 갑은 을과 달리 사회보다 개인이 도덕성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본다.

④ 을은 갑과 달리 사회의 이익을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으로 본다.

⑤ 갑, 을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13.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갑: 음악은 즐거움[樂]으로, 사람의 감정상 없을 수 없지만 도리에 맞지 않으면 어지러워진다. 선왕은 천하를 크게 바로잡아 조화시키고자 예(禮)와 함께 음악을 제정했다.
> 을: 음식의 목적이 즐거움이 아닌 것처럼 예술의 목적도 즐거움이 아니다. 인간 상호간의 교류 수단인 예술의 목적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있다.

〈보 기〉

ㄱ. 갑은 예에 부합하는 미적 욕망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ㄴ. 갑은 예술이 예술 안에서만 완벽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ㄷ. 을은 예술의 사회적 기능이 심미적 가치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ㄹ. 갑, 을은 예술 체험을 통해 도덕감이 고양되어야 한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4. 다음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 최초의 정당한 취득 행위에 이어 자발적인 교환 행위로 재산의 정당한 이전(移轉)이 잇따르게 된다면, 사람들이 정확히 자신의 것만을 소유하게 되는 정당한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현실의 역사는 강자가 약자의 소유물을 빼앗아 온 역사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간 부당하게 발생한 이전들을 보상함으로써 교정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하나의 원칙으로 표현하면, '각자는 자신이 선택한 대로 주고, 각자는 자신이 선택받은 대로 받는다.'가 된다.

① 최소 국가만이 유일하게 정의로운 국가인가?

② 근로 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제 노동과 동등한가?

③ 나의 천부적 재능은 공동 자산이 아니라 나의 소유인가?

④ 모든 우연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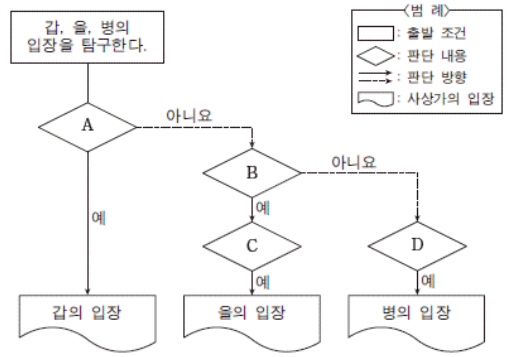
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배는 오직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하는가?

1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갑: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동물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둔화시키고 도덕성에 매우 이로운 자연적 소질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는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
을: 동물, 식물, 토양이라는 회로를 통해 흐르는 에너지가 솟아나는 샘, 그것이 자연이다. 사슴이 참나무 외에도 백여 종의 식물을 먹는 것처럼 먹이 사슬의 여러 고리로 연결된 자연은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이다.
병: 동식물은 고유의 선을 갖는 실체이다. 이러한 관점을 지닌 합리적 인격체들은 자연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취하고, 동식물을 내재적 존엄성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① A : 쾌고 감수 능력은 동물의 이익 고려를 위한 충분조건인가?

② B : 인간은 자연 전체에 대해 직접적인 도덕적 의무를 지니는가?

③ B :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이 개별 생명체의 존속보다 중요한가?

④ C : 무생물이라도 도덕 공동체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⑤ D : 인간과 식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동등한가?

16. (가), (나) 사상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점]

(가) 본래의 마음[心]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다면 그 본성[性]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본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하늘이 무엇인지[天命]도 알 수 있다.

(나) 사람은 땅을 법칙으로 삼고 땅은 하늘을 법칙으로 삼는다. 하늘은 도(道)를 법칙으로 삼고 도는 자연(自然)을 법칙으로 삼는다.

① (가)는 하늘이 인간 이외의 만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진다고 본다.

② (나)는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인 가치가 만물 속에 내재한다고 본다.

③ (가)는 (나)와 달리 하늘이 만물에 법칙을 주는 최고 존재라고 본다.

④ (나)는 (가)와 달리 하늘이 만물 위에 존재하는 절대 원리라고 본다.

⑤ (가), (나)는 하늘이 만물의 운명을 주재하는 인격적 존재라고 본다.

17. 다음 서양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사회 계약에 기초하여 하나의 국가가 건립되듯이, 국제 관계도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연맹 체제에 기초한 국제법을 통해 평화 상태에 들어설 수 있다. 이 상태에서만 국민의 모든 권리나 국가들의 소유가 확정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참된 평화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연맹의 이념은 모든 국가로 확산되어야 하며, 영원한 평화로의 지속적인 접근은 인간 및 국가의 의무로서, 그리고 권리에 기초한 과제로서 성립될 수 있다.

① 국제적 사회 계약을 통해 연맹 체제를 단일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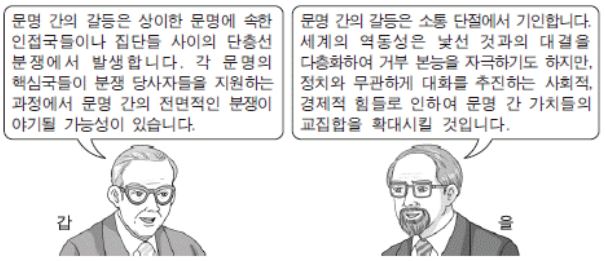
② 개별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적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③ 연맹 체제의 단계에서도 개별 국가의 주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④ 세계 시민법은 인류의 평화적인 교류 조건에 한정되어야 한다.

⑤ 연맹의 확산을 통해 국제 사회는 자연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

1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갑 : 핵심국들이 단층선 분쟁 억제를 위해 타협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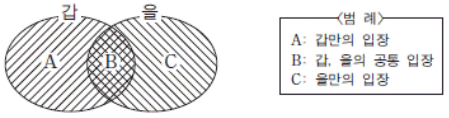
② 갑 : 문명과 문화의 다양성을 배제하고 동질성을 모색해야 한다.

③ 을 : 국제 교류의 확대를 통해 문명 간의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

④ 을 : 세계는 개별 문명을 넘어 단일 문명의 실현을 추구해야 한다.

⑤ 갑, 을 : 국제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정치 이념의 차이에서 찾아야 한다.

19.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정언명령이자 사법권의 이념으로서 정의가 선험적으로 근거된 법칙들에 따라 의욕하는 바이다. 을: 형벌은 최대 행복의 원칙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 형벌은 범법자에게는 교정과 무력화로, 다른 사람에게는 본보기로 작용하여 위법 행위를 방지한다.
(나)	

〈보 기〉

ㄱ. A: 사형은 살인범을 인격적 존재로 존중하는 것이다.
ㄴ. B: 형벌은 보복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면 안 된다.
ㄷ. C: 형벌의 부과는 공리성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ㄹ. C: 사형은 범죄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선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다. 시장형 성격의 사람은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한 교환의 의미로만 주어야 한다고 본다. 비생산적인 성격의 사람은 주는 것을 가난해지는 것으로 생각해서 대부분은 주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사람은 환희의 경험보다 고통을 감수하는 희생이라는 의미에서 사랑을 주는 것을 덕으로 삼는다. 그들은 모두 사랑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생산적인 성격의 사람은 사랑을 주는 것이 잠재적인 능력의 최고 표현이며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본다. 이것은 상대방의 생명과 성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며, 착취 없이 존경하는 것이다.

①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여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다.

② 사랑은 상대방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답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③ 사랑은 상대방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돌보는 것이다.

④ 사랑은 상대방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⑤ 사랑은 능동적으로 활동하여 자신의 생동감을 고양하는 것이다.